

6년간 우리학교에 후원을 이어오고 있는
'고기야 미안해' 대표 정일웅 씨를
만나 보았다.



대학주보

학생총투표 모바일·대면 병행

장혜림 기자 vicky21524@khu.ac.kr

2022학년도 양 캠퍼스 총학생회(총학) 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이번 학생총투표에서는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단,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특별대표기구 회장단, 각 전공·학과별 학생회장단에 대한 선출이 이뤄진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동아리연합회 선거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캠퍼스(국제캠)의 경우 중앙동아리연합회 총투표도 이번 선거기간에 치러진다.

서울캠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후보자 예비등록과 추천기간을 거쳐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선거운동기간을 가진다. 투표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투표율 50% 미달 시 다음 달 3일까지 투표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국제캠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후보자 추천 및 등록기간을 가진 뒤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 선거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4일이지만, 단과대학의 각 전공·학과별 학생회장단 투표 기간은 23일에 마감된다. 서울캠과 마찬가지로 투표율 50% 미달 시 투표 기한은 연장된다.

양 캠퍼스는 선거운동 진행 방식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모두 허용한다. 김정한 국제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위원장(디지털콘텐츠학 2015)은 “비대면 선거운동을 주된 방식으로 하되, 위드코로나 기조를 따라 대면 선거운동에 걸려 있는 제약을 비교적 자유롭게 바꾸고자 한다”며 “기존에는 실내 대면 선거운동을 희망할 경우 사전신고 절차가 필수적이었지만, 이번 선거는 선거운동 참여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방침만 둘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캠은 대면 선거운동 진행을 확정지었으나 구체적인 방역 수칙은 논의 중에 있다.

학생총투표는 현장투표와 온라인 비대면 투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투표에 참여할 수

는 링크는 인포21의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에 문자로 전송될 예정이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자 투표는 각 캠퍼스 중선관위가 마련한 온라인 투표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면 현장 투표가 가능한 단과대학은 양 캠퍼스 선관위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남우석 서울캠 중선관위 위원장은(철학 2018) “무용학과와 같이 대면 수업이 많은 단과대는 작년에도 오프라인 투표소를 설치했다”며 “대면 수업 빈도를 비롯해 단위 선관위에서 대면투표소 설치를 원하는지 등의 여부를 따져보고 현장 투표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 국제캠은 체육대학(체대)과 중앙동아리연합회가 현장 투표를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각 체대와 학생회관에 모든 학생들이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현장 투표소가 설치된다.

캠퍼스별 정책공청회 및 정책토론회도 진행된다. 국제캠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책공청회가 개최돼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볼 수 있다. 서울캠은 하나의 선거운동본부(선본)가 구성된 경우 후보자 정책공청회, 두 개 이상의 선본이 구성된 경우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두 번째 온·오프라인 병행 총선거를 앞두고 서울캠 남 위원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선거라고 해서 분위기가 마냥 침체되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의 높은 참여율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캠 김 위원은 “작년에도 오프라인 선거로 인해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간편한 온라인 선거 방식으로 인해 오히려 투표율이 높아졌었다”며 “올해도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양 캠퍼스 학생대표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2022 양 캠퍼스 학생총투표 일정



2022 양 캠퍼스 학생총투표 일정

대면 수업 방식 이르면 계절학기부터

이태영 기자 ysmhip6@khu.ac.kr

대학의 대면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교육부의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이 발표됐지만, 우리학교는 지난 6월 공개했던 2학기 수업운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교육부는 29일 발표한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통해 11월부터 학기 말까지 소규모 수업이나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 원칙으로 운영할 것을 공시했다. 그 외 수업도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대면으로 운영할 것을 각 대학에 권고했다. 이 같은 교육부의 권고안이 우리학교에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학사지원팀 관계자는 “교육부의 추진 방안이 나왔지

만 이와는 별개로 우리학교는 이전에 공지되었던 수업방식을 2학기까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학본부는 지난 6월 수강생 30명 이하 ‘성찰과 표현’ 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양강좌에 대해 비대면 수업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전공강좌는 수강생 30명 이하 강좌나 실험·실습·실기 강좌 또는 30명이 넘는 강좌 중 학장의 승인을 거친 경우 대면 수업이 허용됐다.

교·강사별 재량에 따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던 강좌가 대면수업 형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던 수업이 학기 중에 대면으로 전환될 경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주

거 문제 등 많은 혼란을 빚을 수 있다”며 “교육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교·강사의 재량에 따라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겨울 계절학기의 경우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각 대학에게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업방식을 선택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학사지원팀 관계자는 “겨울 계절학기 수업의 경우 단기간에 적은 학생이 오기 때문에 대면 수업으로 전환될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겨울 계절학기 수업을 대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다음 주(11월 둘째 주) 중에 진행되는 회의에서 그 안건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생자치활동 정상화 여부 또한 교육부가 설치를 권고한 단계적 일상회복 위원회가 구성된 후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